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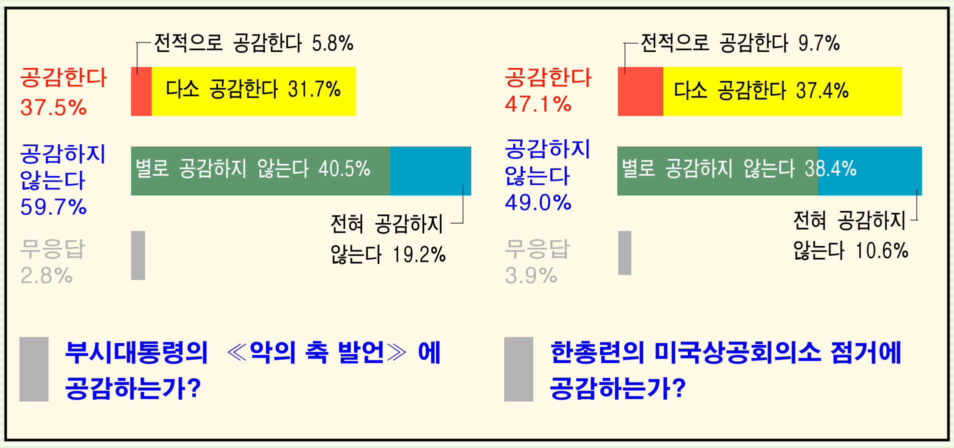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일 토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0호

미국이 더 싫어졌다 《56.1%》

시사저널, 미디어리서치 《대미감정》 긴급 여론조사

《한총련, 미국상공회의소 점거에 공감》 47.1%
《악의 축》 발언에 분노, 《김동성 사태》로 대폭발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오만함에 《50년 혈맹》 한국의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 결코 미국과 미국인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주의를 집중할 때는 동그란 눈을 치켜 뜨고 이마에 여러 가닥 주름살을 새겨 넣는 독특한 버릇이 있는 조지 더블유 부시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3위에 오를 만큼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부정적이다.

《시사저널》은 최근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을 알아보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점은 지난 2월 23일 부시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대중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으로 날아간 직후였다. 그의 방한 기간에 서울 시내는 시위로 소란스러웠고, 때마침 터진 《쇼트트랙 사건》으로 여론은 술렁거렸다. 긴급 여론조사는 바로 이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충격의 결정판》은 지난 2월 19일 부시대통령의 방문에 때맞추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점거한 한총련 대학생들의 소행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였다. 《미 상공회의소 점거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1%가 《공감한다》(《전적으로 공감한다》와 《다소 공감한다》의 합계)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의 합계)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9.0%, 차이는 미미하다. 점거 사건의 주체가 한총련이라는 과거 공안 당국자들의 조작에 의해 거의 《이적단체》와 동일시되었던 집단인데도 《공감한다》와 《공감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온 것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과거에는 《반미》가 소수 운동권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일반 시민은 한총련 학생들의 행동에 공감하고 있다. 응답자들 스스로도 미국에 관한 생각에 큰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우선 《미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 여부》를 물었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56.1%가 《《과거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시사저널》은 이들 응답자만을 상대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 다섯 가지 보기를 제시하며 다시 한번 질문했다. 《감정이 더 나빠진 계기가 무엇인가》, 《반미감정에 불을 지른 《결정타》는 솔트레이크 겨울 올림픽에서 벌어진 《김동성 금메달 도둑사건》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5.0%가 《겨울 올림픽의 쇼트트랙 부문 심판 판정 사건》이라고 답한 것이다. 거의 모든 다른 답을 압도한 응답률이었다. 또 거의 모든 계층의 조사 대상이 이 응답에 가세했다.

이어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18.8%응답을 얻어 2위, 아프가니스탄 정권과의 반테러전쟁이 3위(8.1%), 지난해 터진 주한미군 기지 독극물 방출 사건도 3.5% 응답률을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13개 문항에 대한 응답 전반에 걸쳐 《김동성 사건》이 미친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동성 사건》에 뜨겁게 달아오른 응답자들은 《미국》 그 자체나,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시비를 걸고 넘어질 태세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반테러전쟁에 대한 반응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반대한다》와 《전적으로 반대한다》를 모두 합쳐 71.4%가 미국의 반테러전쟁 확전 움직임에 바내의사를 표시했다. 미국에 대한 태도가 더 나빠진 계기를 묻는 질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3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벌써부터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내온 듯하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62.9%, 미국과 북한의 대화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6%가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고 답했지만, 《미국의 잘못이 더 크다》는 쪽도 24.2%로 만만치 않은 비율을 보였다.

현재의 반미 감정은 앞으로 한미간에 풀어야 할 현안의 진로에 대해서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현재 미국과 미국정부는 대북정책외에도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 문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소파)개정문제, 미사일방어계획 참가문제,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외교, 군사, 사회전부문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용산기지내 미군 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해 《반대》가 76.4%로 《찬성 18.9%》를 압도했다. 그뿐만 아니다.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까지 판촉에 나서고 있는 에프15기에 대해 《구입에 반대한다》는 대답이 63.7%를 기록했다.

시사저널 645호 (3월 7일) 박성준기자

여론

1 미국이 더 싫어졌다 《56.1%》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2)

세기와 더불어

4 3장 7절 3부통합

칭송

6 한 여대생의 고백
6 숭고한 도덕의리

한국민족민주전선

7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저지시키자
7 부쉬대통령에게 묻는다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28일
8 시대와 민의에 역행하는 우익보수 매장하자
8 언론탄압자의 언론탄압설
9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9 연방제는 평화통일의 유일한 방도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 2월 28일
11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을 힘 있게 떨치자 – 노동신문사설

아리랑뉴스

13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 자주 선언 대회
13 달라진 3.1절, 노장층은 반일, 청년층은 반미
13 동아 · 조선, 명단공개 《왜곡보도》
14 반미와 남북화해 그리고 공안세력의 《위기감》
14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인터뷰

운동강좌

15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 (5)

광고

15 6.15주간 제35호 (2.22~2.28)

조국통일3대헌장

16 북남당국자들간의 협상, 7.4 남북공동성명 (1)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2)

주체44(1955)년 4월

2)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임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 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더한층 강화하면서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쟁취한 성과들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데 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소상품경제 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를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지배적 지위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낙후성을 퇴치하고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쌓는 것은 공업화의 제1단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오직 위력한 중공업을 창설하는 조건하에서만 모든 공업, 운수 및 농촌경리의 발전과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넘겨받은 우리 중공업의 낙후성과 그 기형성은 해방후 우리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을 저해하였으며 특히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촌경리의 균형적 발전에 큰 지장을 주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서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원래 극히 낙후하였던 경공업을 추켜세우지 못할 것이며 농촌에 선진 농기계들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며 인민생활의 근본적인 개선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는 조건하에서만 경제의 자립성과 국가의 자주적 발전이 보장된다.

농촌경리에 있어서는 농민들을 자원적 원칙에 따라 점차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끌어들임으로써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경리로 전환시켜야 한다.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화의 길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농업이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갈 수 없으며 공업에 원료와 노력후비를 보충하여 줄 수 없으므로 결국 공업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며 따라서 북반부의 전반적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경리로 개조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없으며 농촌에서 소생하는 부농과 기타 착취적 요소들을 근절할 수 없으며 우리 당의 농촌진지를 공고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수공업과 개인소상업은 협동경리를 통하여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에 아직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제한, 이용하며 점차적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연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시장을 통한 경제적 연계를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 속에서 새로운 기술, 문화일군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전후에 이러한 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경제의 복구건설을 세 개의 기본단계로 구분하고 그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반년 내지 1년으로 되는 전반적 복구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와 인민경제 각분야에서 전쟁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며 공업과 농업생산을 전쟁 전 수준에 도달하게 할 3개년계획의 수행단계 그리고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쌓을 5개년계획의 수행단계를 설정하였다.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노선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는 3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에서는 인민생활의 개선과 밀접히 관련된 중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며 파괴된 공장, 제조소출을 복구하는데 중심을 두면서 동시에 그것을 새 기술에 토대하여 재건하며 일부 공장들을 신설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파괴된 공장들을 원위치에 기계적으로 복구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 공장들은 복구의 속도와 경제상 절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의 위치에 복구하며 신설하게 될 공장들과 제조소들은 우리 나라의 원료원천들과 교통운수 및 기존 공업시설들과 유기적 연계를 타산하여 배치할 것이 규정되었다.

3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 1956년에 가서 공업총생산액은 전쟁 전 1949년 수준의 1.5배, 그 중 생산수단생산은 1.3배, 소비품생산은 2배로 각각 장성하게 될 것이다.

공업생산의 이러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간에 373억 6, 000만원의 자금을 공업부문에 투자하게 된다.

3개년계획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과거에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될 뿐 아니라 수많은 기계공장들이 신설될 것이며 경공업도 동시에 급속히 복구 발전될 것이다.

1956년 이르러 6만 내지 10만 추의 방적기를 가지며 년산 4, 000만 내지 8, 000만 메터의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직공장을 비롯하여 통졸임공장, 육류공장 등 많은 경공업공장들이 신설될 것이다.

3개년 인민경제계획에는 농촌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그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막대한 국가적 지원을 줄 것이 예견되어 있다. 3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에 55억 7, 500만원을 투자하게 될 것이며 그 중에서 관개공사에 22억 2, 500만원이 투자될 것이다.

농업의 급속한 발전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될 것이며 경공업에 더 많은 원료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1956년에 가서 알곡 총수확고는 전쟁 전 1949년도 수준을 19% 능가하게 될 것이며 그 중 벼의 총수확고는 30% 증가할 것이다.

3개년계획기간에 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며 식료품과 공업상품의 배급제를 철폐하고 자유상업에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조건들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3개년계획기간 내에 교육문화부문에서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들이 조성될 것이며 대학생은 2만 2, 500명에 달하게 될 것이다.

민족문화와 예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13만 4, 000석을 가진 극장, 영화관 및 구락부들이 복구 또는 신설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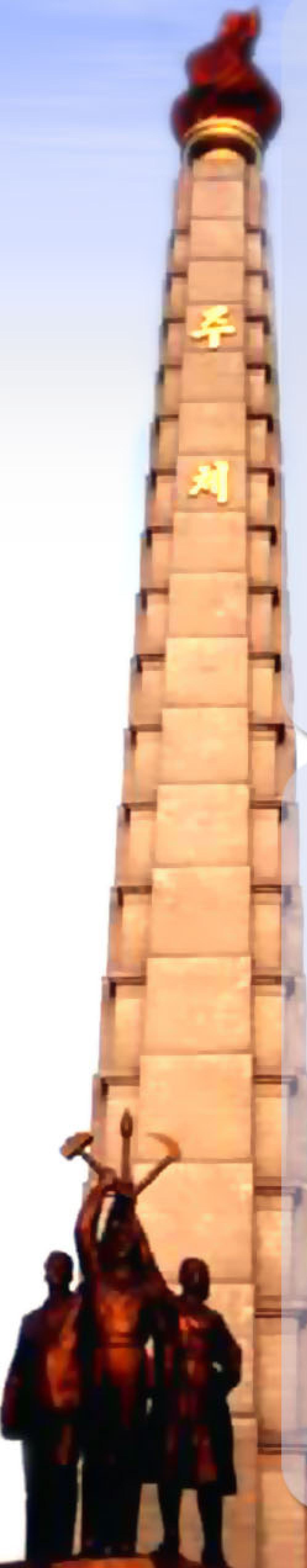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3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 1956년에 가서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인민경제는 기본적으로 복구될 것이며 이리하여 북반부에서 전후복구시기는 끝날 것이다.

이 시기에 복구된 공업과 농촌경리는 장차 우리 나라 경제를 사회주의경제로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로 될 것이다.

이 토대 위에서 장차 수립될 인민경제 발전 제1차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 것이다.

5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부문에서는 우선 3개년계획기간에 채 복구하지 못한 제철소

우리 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은 자기의 간고한 투쟁에서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항상 승리하여 왔다.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들을 완전히 복구하여 연산 약 100만 톤의 선철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기계제작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연산 2, 000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1년에 가서 전력생산 총능력은 185만 키로와트로 될 것이며 석탄생산은 850만 내지 900만 톤으로 장성할 것이 예견된다.

우리의 화학공업은 40만 톤 이상의 비료를 국가에 주게 될 것이다.

5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은 더 많이 개발되어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외화획득의 주요원천으로 될 것이다.

5개년계획기간에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필수품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게 될 것이다.

5개년계획기간에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의 주되는 생활필수품인 직물생산과 식료품가공에 중심적인 주의가 돌려질 것이다.

1961년에 가서 직물생산은 1억5, 000만 메터로서 공화국북반부의 인구 1인당 약 15메터씩 차례질 것이며 주요도시 부근에는 남새 및 고기 가공공장들과 제분공장들이 건설될 것이다.

5개년계획기간에 농업부문에서는 350만 톤의 알곡, 15만 톤의 고기, 15만 톤의 사탕무우, 5만 톤의 목화와 8만 톤의 실과, 3만 톤의 누에고치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북반부에서 식량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원료에 대한 경공업의 수요는 더욱 원만히 충족될 것이다.

5개년계획기간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농업을 전반적으로 협동화함으로써 농촌에서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청산하게 될 것이며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으로 단련하고 선진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간부들이 많이 요구된다. 우리는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1년에 13만 여명의 우수한 기사, 기수들을 가져야 한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 것은 방대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영도되는 조선인민은 이 위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당과 영도 밑에 노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도덕적 통일이 형성 발전되고 있으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은 수백 만 근로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에게는 전쟁 전 5년간의 평화적 건설과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쌓은 고귀한 경험이 있으며 3년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100만 당원들과 영웅적인 인민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다.

우리는 쏘련을 비롯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의 선진경험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나라들로부터 방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유리한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는 애로와 난관들도 있다.

우리 나라 공업은 그 역사가 극히 짧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여지없이 파괴되었으며 풍부한 자원들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으며 산업간부들은 대단히 부족하다.

우리 인민의 문화수준은 아직 낮으며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는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공업지대인 북반부와 농업지대인 남반부가 인공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국제반동의 괴수인 미제가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 북반부에서의 건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진행된다.

우리는 이 모든 애로와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또 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담보로 된다.

당을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당대열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당규율을 강화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의 발양은 당위원회들의 사업을 개선하며 당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는 조건하에서만 보장된다.

매 당원들과 지도간부들은 당적 지도의 집체적 원칙을 준수하며 이에 배치되는 일체 개인 영웅주의적, 자유주의적 경향들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은 맑스 - 레닌주의이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역사와 결정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쏘련공산당을 비롯한 형제나라 공산당 및 노동당들의 사회주의건설 경험을 진지하게 연구 섭취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건설에 대한 이론과 과학기술지식을 꾸준히 습득하며 자기의 실무적 및 문화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노농동맹에 기초한 우리의 국가주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공화국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인 국내 반동세력은 조국의 통일독립을 반대하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들을 다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가주권기관들을 강화하여야만 인민대중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위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반혁명분자들과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에 대한 독재의 강화와 인민대중 속에서의 민주주의 발양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 당이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우리의 인민무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야만 인민의 피땀으로 쟁취한 귀중한 성과들과 우리 민주기지를 적들의 침해로부터 철옹성같이 보위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강철같은 간부군대로 단련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전인민적 원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은 전체 조선인민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고 있다.

우리 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은 자기의 간고한 투쟁에서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항상 승리하여 왔다.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없다.

조선인민은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지 들고 쏘련을 선두로 하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진영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자체의 혁명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끝)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7. 3부통합

1920년대는 총적으로 볼 때 반일애국력량의 단일전선에로의 통합촉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전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은 독립의 기초가 반일력량의 통일단결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과 3.1인민봉기의 영향밑에서 새 사조의 보급과 함께 급속히 태어난 여러개의 로동운동단체들은 1920년대중기에 와서 조선로농총동맹으로 통합되였다. 반일애국세력을 한데 묶어세우기 위한 작업은 민족주의진영에서도 진행되였다.

1927년에는 민족단일당조직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공산주의진영과 민족주의진영의 공동전선기관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어 그 산하에 수만명의 회원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하였다.

반일애국력량의 통합을 위한 운동은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전환된 만주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였다. ≪항일합병≫직후부터 만주지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은 무수한 리합집산과정을 거쳐 1925년경까지는 대체로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3부로 나뉘여져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자기 단체의 관할구역에 금을 그어놓고 다른 단체와의 협동적 련계도 없이 중세기의 소공국들처럼 서로 등을 지고 할거하던 3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공세앞에서 각개격파당할 위험에 처하여있었다. 훈춘사건과 홍경사건, 고마령사건을 비롯한 일본군의 련속되는 대학살작전과 ≪미쯔야협정≫으로 만주지방의 독립군단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봉오골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한 후부터 일본군은 독립군의 무장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였고 일본군 한명이 죽으면 조선사람 열명을 죽이는 간악한 심리살륙전으로 성장기에 있던 독립군을 피동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패권다툼에 열을 올리던 각 부의 지도자들은 군앞에 조성된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부가 태어난 초시기부터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 당시 3부는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경쟁에 쓸데없는 정력을 소모하면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상태에 놓여있었다. 3부의 패권싸움은 이따금 가슴아픈 충돌과 류혈도 빚어냈다.

나는 1925년 여름에 이미 3부의 지도자들이 무송에 모여 아버지가 사회하는 큰 규모의 회의를 열고 통합실현의 방도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회의는 무송과 말리허, 양지촌 세곳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열흘동안이나 진행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민족단체련합촉진회였다.

민족단체련합촉진회에 망라된 인사들은 민족단일당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파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련계밑에 재만조선동포의 자치문제와 혁명전선의 통합을 위한 회의를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장소를 바꿔가며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왕바사건≫이라는 소설 같은 사건도 생기였다.

그 당시 김동삼, 최동오, 현묵관, 심룡준, 림병무, 김돈, 리연, 송상하를 비롯한 3부의 지도자들은 신안툰에 모여 통합회의를 하고 있었다. 신안툰은 길장철도에서 서남쪽으로 30리쯤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은 동네인데 길림, 홍경, 화전과 더불어 만주에서 몇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3부합작회의의 기밀을 내탐한 일본령사관경찰에서는 평민으로 가장한 다섯명의 밀정들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밀정들은 신안툰근처의 동향수구부락까지 와서 자라잡이를 하는척하면서 3부합작회의과정을 탐지하였다. 그러다가 마을청년들에게 정체가 탄로되어 모조리 처단되였다. 청년들은 밀정들을 한끈에 묶어 송화강에 수장하였다.

길림주재 일본령사관경찰에서는 중국 경무청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조선사람들이 일본량민을 살해하였다는 리유하에 사건현장과 신안툰에 대한 공동수사를 강요하였다. 이 사실이 경무청에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던 오인화라는 사람에 의해 3부합작회의 대표들에게 통보되었다. 대표들은 일단 휴회를 선언하고 신안툰을 떠났다.

이것을 세칭 ≪왕바사건≫이라고 한다. 왕바란 중국의 속어로 자라라는 뜻이다.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3부의 회의는 무수한 난관과 우여곡절을 동반하였다. 3부합작을 두려워하는 일제의 집요한 미행과 파괴책동이 첫번째 난관이라면 그보다 더 큰 난관은 각 단체 내부에 생긴 파벌들의 대립이였다. 정의부는 촉성회파와 협의회파로 분렬되어있었고 신민부는 군정파와 민정파로 대립되어있었으며 참의부는 촉성회지지파와 협의회지지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였다. 김동삼, 리청천, 리종건을 비롯한 촉성회측은 정의부에서 탈퇴하였고 김좌진, 황학수를 우두머리로한 군정파도 신민부와 결별하였다.

3부통합회의가 제일 자주 소집된곳은 길림이였다.

길림의 상의가에는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복흥태라는 정미소가 있었다. 길림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은 그 정미소사무실을 침실과 사무실로 리용하고 있었다. 남만과 북만, 동만에서 오가는 독립운동자들까지도 그곳을 단골방으로 자주 리용하였기 때문에 복흥태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바로 여기서 3부통합회의가 해를 넘기며 열리고 있었다.

복흥태정미소가 육문중학교로 오가는 길목에 있었으므로 나는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였다.

그 정미소의 주인은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민족주의자로서 남의 쌀을 찧어주고 도정료를 받아서 밥술이나 먹고 살아가는 소기업가였다.

어느날 그 정미소에 들리니 내가 아는 령감들이 김형직선생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김좌진, 김동삼, 심룡준을 비롯한 3부통합회의 대표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였다. 그렇게 소개해놓고는 롱담삼아 ≪이 사람은 우리하고 사상이 달라.≫하고 꼭지를 달아놓았다.

나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선생님들도 조선독립을 하자는 것이고 저도 조선독립을 하자는 것인데 사상이 다를리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그들은 자네들이 사회주의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였다.

공산주의선전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 추세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청년들인데 남들이 다하는 공산주의를 왜 조선청년들이라고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새것을 보지 않고 계속 낡은 것에만 매여달린다면 조선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고 또 우리는 세대가 다른데 선생님들이 청년들의 심정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하고 들이대였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령감들은 ≪자네가 아무것을 하든 우린 상관하지 않겠네. 설마하니 자네들이 우리야 타도하겠나.≫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들을 타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점잖게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일은 그후에도 몇번 있었다.

가며오며 이따금씩 들려봐아도 3부가 통합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독립군의 지도자들은 짜증이 날 지경으로 회의를 질질 끌고 있었다.

나는 3부의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들의 생활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그 생활이라는 것이 고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길림성밖 조양문근처에 삼풍잔이라는 간판을 단 려관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다. 3부통합회의가 휴회로 들어갈 때마다 독립군의 지도간부들은 이 려관에 모여 다른 파를 견제하기 위한 모의를 하였다.

그 려관 가까이에는 우리가 대중교양장소로 리용하고 있던 손정도의 례배당이 있었다. 그러다나니 나도 자연

신간회 회의장면

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면 이 삼풍잔에 모인 독립군상층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었다.

그들이 정해놓고 쓰는 방에는 손때가 올라 반질반질한 장기판이 늘 놓여있었다. 독립군들이 심심해한다고 려관주인이 특별히 만들어온 장기판이였다. 독립군령감들은 그 방에서 진종일 입씨름을 하든가 장훈이야 멍훈이야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삼풍려관 주인들은 독립군거두들을 섬기느라고 뽕이 빠질 지경이였다. 그들을 치를 때는 태풍합정미소에서 찧어내는 쌀가운데서 제일 좋은 쌀을 골라 밥을 해먹이군 하였으며 고기나 두부나 물고기 같은 반찬도 떨구지 않았다.

독립군지휘관들은 매일 장기놀이로 밤을 밝히면서도 주인들한테서 밤참으로 메밀국수를 꼭꼭 대접받군 하였다.

그 집 딸이 하는 말이 그것도 다 공짜라는 것이였다. 그는 밤마다 담배심부름, 술심부름을 하느라고 잠조차 제대로 잘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한번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저 사람들을 섬기다가는 석달도 못가서 거지가 되겠어요.≫라고 하였더니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나라를 찾자고 싸우는 분들인데 무엇을 아끼겠니. 이제 준비가 되면 싸우러

떠날게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말아라.≫라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독립군의 지휘관들은 싸우러 떠나기는커녕 무기를 모아다 창고에 감추고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가면 장부책 같은 것을 펴놓고 무슨 일을 하는 척하였다. 젊은이들한테 건달군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눈치놀음을 하는 것이였다.

어떤 날은 그들이 주먹이나 목침으로 책상을 꽝꽝 내리치며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상욕들을 퍼붓기도 하였다. 3부가 통합을 한 다음 어느 파가 실권을 쥐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문제였다. 그들은 자기 파가 활동년한도 더 오래고 업적도 더 크다거니, 자기 파가 관할하는 구역이 더 넓고 군중도 더 많다느니하면서 제가끔 자기 파를 내세우고 다른 파를 깎아내리였다.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고 밤새껏 주정질을 하다가 다음날 한낮때가 되어서야 일어나군 하였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태풍합정미소에 갔다가 거기서 상해림시정부 재정부장이라는 사람과 론쟁을 하였다.

그는 자기네 동료 몇사람을 데리고 길림에 와서 몇달째 3부통합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가 청년들과 어울려 장난도 잘하고 진보적인 냄새가 풍기는 말도 자주 하므로 우리도 그를 만나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속에 있는 소리를 꺼리낌없이 터놓군 하였다.

그날 우리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해림시정부를 좀 비판하였다. 당신네들은 나라도 민족도 안중에 없이 백성이야 어떻게 돼가든 외국에 쫓겨와서까지 제가끔 한자리 해먹겠다고 싸움질만 하며 돌아가는데 그러고도 애국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벼슬을 한대야 촌에 나가서 농사하는 집 몇집을 상대로 군자금을 거두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인데 그런 권력다툼은 해서 뭘하겠는가고 우리 청년들 몇이 둘러앉아 막 공격을 들이댔다.

재정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정당한 충고에 말문이 막혀 쩔쩔매다가 자기를 모욕한다고 노발대발해서 우리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해? 그래, 옳다. 너희들만 잘나고 우리는 못났다. 그럴바에는 나나 너희들이나 다같이 실컷 망신을 당해보자.≫

그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옷을 와락와락 벗어내치였다. 벌거벗고 거리바닥에 나가 뛰어다니면서 조선사람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이였다. 자기가 모욕을 당했으니 그대신 민족을 망신시키는 것으로 앙갚음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런 사람은 난생 처음 보았다. 간판은 림시정부부장인데 소행을 보면 무뢰한이고 망나니였다. 그가 정미소담장밖으로 나가는 날이면 야단이였다. 재정부장의 망신이자 우리의 망신이고 조선사람의 망신이였다. 그래서 그를 겨우 진정시켜 옷을 주어입혔다.

우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자고 하였다. 자기네를 비판하였다고 알몸뚱이바람으로 거리바닥에 뛰어나가려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배꼽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나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 꼴이니 그게 무슨 정치인인가.

이 사람이 상해림시정부 망신을 다 시키었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는 상해림시정부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파쟁을 한다고 곱지 않게 보았고 구걸외교에 매달린다고 곱지 않게 보았으며 군자금을 탕진하며 무위도식한다고 곱지 않게 보았다. 림시정부는 인두세와 구국의무금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공채까지 발행하고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개는 어느 도의 관찰사, 아무개는 어느 군의 군수, 아무개는 어느 면의 면장으로 임명한다는 ≪사령장≫이라는 것을 주고 그 직함에 따라 해당한 금품을 받아들이는 매관매직까지 하였다.

민족주의자들이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파벌싸움을 계속하고 있은 사이에 일제는 그들속에 주구들을 박아넣어 반일독립운동자들을 손쉽게 붙잡아갔다. 가장 가슴아픈 손실은 오동진이 체포된 것이였다. 일제경찰은 주구 김종원을 시켜 조선의 큰 금광주 최창학이 장춘에 와있으니 그와 교섭하면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동진을 유인해내여 장춘부근 흥륭산역에서 체포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얼마동안 밥맛을 잃어버리다싶이 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후 오동진의 아들 오경천이 길림영화관에 구경을 갔다가 화재사고로 죽었다. 내가 불속에 뛰어들어가서 업어내오기는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였다. 남편이 감옥에 잡혀가고 아들까지 잘못된 후 오동진의 부인은 고민끝에 정신이상에 걸리고 말았다. 우리가 가서 위로도하고 병구완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부인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동진이 죽음을 각오하고 법정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3부통합을 한다고 매일같이 모여앉아 술추렴이나 하면서 세력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니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심정이 좋을 수가 없었다. 오동진의 체포에서 맛을 들인 일제경찰은 더 많은 반일운동자들을 붙들어가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아쳤다. 그래도 3부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말공부질만 계속하였다.

하루는 그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바지가랭이

길림시 상의가에 있는 복흥태정미소

에 모래를 넣고 정미소울타리안을 왔다갔다하면서 달리기훈련을 하는 것이였다. 그 광경을 보게 된 나는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일제의 만주침략이 눈앞에 박두하고 조국의 운명도 날을 따라 더 암담해만 가는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다못해 우리는 오동진사령의 체포를 통해 선생님들이 크게 깨달은바가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놈들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름있는 반일운동자들을 하나하나 체포하여 처형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직도 여기에 모여앉아 회의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만과 북만, 동만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조선사람모두가 단결을 이룩하도록 하루속히 3부통합을 성사시켜주기 바랍니다 하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3부의 지도자들은 그후에도 계속 싸움질과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때의 조바심과 안타까움이란 실로 형언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파벌싸움에만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얼마간의 무장력을 쥐고 있은 민족주의자들마저 그런 형편이니 참으로 답답하였다.

우리는 생각다 못해 그들에게 좀더 큰 자극을 줄 목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의 권력싸움을 풍자한 연극을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은 ≪3인1당≫이다.

준비가 다된후 내가 가서 3부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였다. 회의를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들이 연극을 하나 만들었는데 피곤도 푸실겸 한번 와보라고 하니 그들은 다들 좋아하면서 손정도네 례배당으로 찾아왔다.

노래와 춤을 비롯한 몇가지 종목들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처음에는 그 령감들이 연극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대단히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세사람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연극의 내용이 자기네들을 풍자한 것임을 알아채고는 얼굴들이 시뻘개서 ≪나쁜놈들, 우리를 감히 모욕해? 저성주가 아주 못쓰게 됐다.≫고 하면서 달아나버리였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찌기 그들한테 찾아가서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어제저녁에 선생님들은 왜 공연도중에 가시였습니까? 연극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령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어제저녁 우리를 뭐라고 욕했는가고 나에게 대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하였다.

≪선생님들, 무엇이 그렇게 노엽습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기에 우리도 너무 답답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어제저녁 연극은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인데 청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선생님들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리정연한 말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저 사람들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하였다. 그후 3부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그것은 정의부의 잔류파와 신민부의 민정파, 참의부의 심룡준파의 련합으로 이루어진 절반짜리 통합이였다.

정의부의 탈퇴파와 참의부 촉성회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는 따로 림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각파의 지도자들은 국민부의 지붕밑에 들어와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앉아 딴꿈을 꾸었다.

민족주의진영의 보수세력은 이처럼 새 사조를 배척하면서 파벌싸움을 하다가 종말을 고 하였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일제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파쟁과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낸것은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시킬 확고부동한 결심이 없었기 때문이였다.

력사는 바야흐로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세대교체를 미룰수 없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이 세대교체를 감당할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연극 ≪3인1당≫

송시

한 여대생의 고백

햇빛 찬란히 비쳐오는 창가에서
나는 조용히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얼어붙었던 이 가슴에
뜨겁게 스며든 사랑은 무엇인가

아직 청춘의 사랑으로도
마음이 끓어보지 못한 나였건만
이 아침 피끓는 심장으로 터놓습니다
마음속 진정을 터놓습니다

역전광장 대형TV에서
김정일영도자님 첨뵙는 순간부터
마음이 끌리어 온 넋이 끌리어
낮에도 밤에도
교정에서도 거리에서도
가슴에 파고드는 것은
오직 그분에 대한 생각 뿐

지금도 우러르면 안겨옵니다
햇빛같이 밝고 환하신 존안
인정미 넘쳐흐르는 따뜻한 미소
청춘의 활력이 넘치신 모습
티끌만한 가식도, 꾸밈도 없는 소탈하신 풍모

지금도 귀 기울이면 울려옵니다
3천리를 뒤흔드는 백두의 우뢰처럼
강산을 쩡쩡 울리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호탕한 웃음소리……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시어서
단 한번에 매혹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애롭고 친근한 분이시어서
이 마음 뜨겁게 반했습니다

그분이 입으신 인민복에
그분이 쓰신 활달한 필체에
그분이 생각하고 펼치시는
모든 것에 반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매혹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품고 계신 모든 것이 민중사랑이기에
그분이 주시는 것이 겨레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기에

나는 그분만 존경합니다
이남민중 모두가
영도자님만을 경모합니다

진리만을 사랑하는 여대생들의 깨끗한 마음을 담아
세월의 끝까지 모시고 따를 한마음 담아
통일조국에 높이 모실 그날의 영광안고
아뢰이는 오직 한마디

아, 민족의 태양 **김정일**영도자님
나는 평생토록
영도자님만을 숭배합니다
영도자님만을 따르옵니다

흠모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는 세계를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정일**주석께서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지금도 그이를 생존시기와 마찬가지로 높이 숭배하고 따르고 있다.

세월은 바위 위에 이끼를 덮고 사람들의 기억에 망각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조선을 방문하여 자기 수령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흠모하고 받드는 조선인민의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도덕적 풍모를 목격하면서 탄복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올해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페루공산당(붉은 조국) 총 비서 알베르또 포레노가 한 말이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를 삶의 태양, 마음의 기둥으로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는 비단 그 혼자에게서만 울려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수령영생위업의 새 역사가 뜨겁게 흐르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현실에 감동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

벨기에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반 아꼴라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자나깨나 **김정일**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속에 안고 살고 있다. 역사는 아직까지 세계의 그 어느 위인도 생존시만이 아니라 서거이후에도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며 영원한 흠모를 받고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조선에서 수령의 위대성은 만민의 끝없는 숭배심을 낳는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조선의 그 어디에나 햇빛처럼 밝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김정일**주석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져있고 그이를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는 인민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특히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면서 나는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뢰와 충효심의 높이를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실로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

조선인민이 오늘도 **김정일**주석을 그처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그이께서 조선의 광복과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영국조선친선연대성운동 위원장 키스 벤네트는 조선인민은 자기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모시는 인류사적 귀감을 창조한 인민이며 수령과의 영원한 혼연일체를 빛나게 실현한 인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에는 조선인민처럼 자기 수령을 도덕의리를 가지고 숭배하고 받들어 모시는 인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수령이 살아있을 때에는 존경과 영광의 상상봉에 올랐다가도 서거 후에는 시비와 중상, 모독의 대상으로 되고 그 위업이 좌절되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는 때에 조선인민들 속에서 발양되고 있는 이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화폭은 인류를 크나큰 격정과 감탄으로 가슴 부풀어오르게 하고 있다.

자기 수령의 위대성과 영생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나라, 수령의 위업을 영원히 받들어 나가는 나라, 바로 이것이 조선의 영원한 모습이다.

자기 수령을 받드는 조선인민의 마음이 깨끗하고 열렬하며 굳건한 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었기 때문이다.

김정일동지는 아직 인류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의 새 역사를 펼치신 충효와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며 가장 걸출한 수령의 전형이시다.

그이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과 인류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여주시었다.

그이의 이 숭고한 도덕의리는 세계를 끝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김정일**동지의 도덕의리가 숭고하고 조선인민의 도덕적 풍모가 고상하기에 조선에서 수령의 위업은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과 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저지시키자

화제의 초점 - 주체91 3월 1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무산되어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을 바라는 7천만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은 한반도의 정세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과 그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극우익세력들의 반통일적 작태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말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말하지만 진짜 그들의 속셈은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에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무산된 것은 미국의 계획적인 파괴음모책동과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방해책동에 기인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는 부쉬의 악의 축망발과 방한에 즈음해 도처에서 반미투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각계 민중의 반미투쟁은 규모와 구호, 주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것들이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이 부쉬의 방한을 반대해 주한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것은 부쉬의 악의 축망발과 반세기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항거의 표시라고 봅니다.

이에 겁을 먹은 미국 호전계층은 금강산에서 남북의 민간단체들이 모여 공동행사를 치루면 반미의 함성이 요란하게 울려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을 부추겨 공동행사를 무산되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사주를 받는 극우익보수세력들은 통일연대 대표들의 참가를 불허하는 방법으로 민족공동행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통일부에 압력을 가해 수많은 사람들의 방북승인을 불허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방북신청이 불허된 사람들은 우익보수세력과 통일부가 말한 것과는 달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방북신청을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불허했으니 이 얼마나 비열한 반통일적 작태입니까.

지금까지 방북신청을 불허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무더기로 방북길을 극악하게 막아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의 통일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조종을 받고 있는 극우익보수세력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이 땅의 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저지시키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도 관철시킬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착실히 이행되어 통일의 문을 열기를 바라고 있는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과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쉬대통령에게 묻는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일

부쉬의 방한에 즈음해 그동안 그가 보여온 일련의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부쉬방한반대투쟁이 모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하나같이 부쉬를 규탄했다.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가한 700인 평화선언준비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초강경정책중단 등을 요구했고 전교조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 등으로 부쉬를 규탄했다.

이처럼 부쉬가 많은 한국민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그의 발언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북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그의 횡포는 무도한 폭력이고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작태이다. 패권을 강화하여 전세계를 자신의 지배하에 묶어 마치 세계경찰국가와도 같은 권력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이같은 불법적인 요구와 패권을 거부하고 정당한 자신의 국권과 독립을 지키려는 나라 중 어느 쪽이 악인가를 부쉬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또 공중폭격 등 무력행사를 자행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나라를 초토화시키려는 잔악한 침략행위와 이같은 불법적인 침략행위로부터 수많은 동포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들의 생활터전과 국토를 지키려는 방어행위 중 어느 쪽이 악인가의 질문에도 부쉬는 대답해야한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악의 논리를 내세워 불복을 거부하는 나라를 제멋대로 악의 나라로 규정하여 이를 분규의 불씨로 삼아 분쟁 또는 전쟁을 획책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오만한 횡포와 이같은 횡포로부터 자존을 지키려는 저항 중 어느 쪽이 악인가도 묻지 않을수 없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자신은 온갖 가공스러운 핵무기 등으로 무장하면서 다른 나라의 무기개발은 폭력으로 막으려는 처사가 옳은 일인가도 생각해볼 일이다. 부쉬는 자신의 이같은 폭력행사를 마치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면서 벌이는 최초의 성전인양 찬양했다.

그러나 새 세기 새로운 천년기의 대명천지야말로 한층 자각되고 깨우쳐진 문명의식으로 인해 미국의 이같은 패권이 더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28일

노동자에 대한 파쇼탄압에 광분하는 검경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불법파업혐의라는 구실밑에 철도와 발전, 가스 등 3개 노조 지도부성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등 그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3개 노조 파업지도부성원 36명과 이른바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된 철도노조간부 27명, 발전노조간부 49명, 가스노조간부 20여명 등 100여명에 대한 조기검거에 나서는 등 이들에 대한 폭압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도와 발전, 가스 등 기간산업노조의 이번 총파업투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민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써 절대로 범죄시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철도, 발전 등 3개 노조 파업 지도부성원들에 대한 파쇼폭압책동을 광분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하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노조간부들을 제거해 노조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노조활동과 노동운동을 봉쇄하기 위한 악랄한 노동운동말살책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일치한 요구대로 파업 지도부성원들에 대한 범죄적인 탄압만행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의 악담을 비난하는 각계 목소리

이회창이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해소니 뭐니하는 악담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대해 각계에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의 이같은 악담은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가셔지지 못하고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감돌고 있는 것은 미국때문이다. 미국이 이 땅에 수많은 침략군과 방대한 핵무기까지 배비해놓고 북을 힘으로 압살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위협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남북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한반도긴장완화의 핵심이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해소에 있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도둑이야 하는 것보다 더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이회창이 북에 대한 악담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은 그가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을 기필코 지피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회창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민족이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 우리 민족이 더큰 재난을 당하기 전에 이회창을 당장 잡아치워야 한다.≫

고려대의 최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부시패거리들이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계속 거드는 목적은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저들의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희생으로 엄청난 돈벌이를 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회창은 미국의 이같은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 정말 가련한 존재가 아닐수 없다. 자기의 추악한 정치적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민족이 피해를 입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이회창을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통일부의 처사 비난 통일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46명 대표들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참가를 가로막은 통일부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통일연대는 이적단체소속 성원 남북교류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의 딱지를 붙여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통일부가 6.15공동선언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연대는 통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에 이북 방문이 불허된 사람들은 오히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운동의 앞장에 서서 헌신해왔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족공동행사를 방해해 나서는 통일부의 만행은 도를 지나고 있다면서 규탄했습니다.

통일부의 처사는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에 대한 훼손이라고 낙인하면서 통일연대는 그 어떤 장벽도 겨레의 통일열망을 결코 막을수 없다고 못박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길로 흔들림없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10기 한총련 임시중앙상임위원회는 2월 26일 ≪통일부는 민족의 편인가 외세의 편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대와 민의에 역행하는 우익보수 매장하자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7일~3월 1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우익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회창을 비롯해서 한나라당내 우익보수세력이 6.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위배되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의 반목과 불화, 대결을 고취하며 반북책동을 일삼는 언행들을 자행한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행각에 이어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회창은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이니 재래식무기감축이니 전략적 상호주의니 하며 대북비방을 일삼으며 남북관계진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해나섰습니다.

심지어 이회창은 나라가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있어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 민족이 자주와 통일의 새시대로 힘차게 나서고 있는 때에

우익보수세력의 괴수 이회창이 이같은 망언을 늘어놓은 것은 사대역적,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만이 할수 있는 범죄행위로써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하루빨리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일념을 안고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제도, 이념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진전시켜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회창과 우익보수세력은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의 관계진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시대와 민의에 역행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극악한 민족반역자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더욱이 용납할수 없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극력 반대하고 한반도에서 기어코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부쉬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과 반북압살책동을 적극 미화분식하면서 이에 적극 추종해 나선 것입니다.

세계가 부쉬의 악의 축망언을 강력히 규탄배격하고 있는 때에 이회창은 북이 미사일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느니 하며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에 동조해 나섬으로써 사대매국노, 민족의 역적으로써의 더러운 정체를 다시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습니다.

이회창의 최근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발은 이미 대세로 되고 있는 민족의 통일열망에 도전하는 행동이며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는 사기할 인간쓰레기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남북사이에 화해와 단합, 조국의 자주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해서 대결과 분열, 전쟁을 추구하는 이회창과 같은 역적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게 된다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은 고사하고 우리 민족에게 어떤 후환이 닥쳐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세기이상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우리 민중은 더이상 민족분열의 비극과 전쟁재난을 당하면서 살수는 없습니다.

민족의 배반자, 통일의 걸림돌인 이회창과 우익보수세력을 매장하는 여기에 우리 민족이 그처럼 열망하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고 우리 민중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노동자이건 농민이건, 청년학생이건 지식인이건 종교인이건 할 것없이 온 국민이 반이회창투쟁에 과감히 나서야합니다.

이회창과 우익보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은 어느 개별적인 단체나 한두사람이 할 일이 아니며 또 그런 소극적이고 소규모적인 투쟁으로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모든 투쟁이 다 그러하듯이 이회창과 우익보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 역시 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승리를 거둘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갈망하고 민족의 분열과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운동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이 반이회창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단결된 역량으로 투쟁을 벌인다면 우익보수세력을 얼마든지 매장할수 있습니다.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은 자주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6.15남북공동선언을 거부하고 말살하려는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의 사소한 범죄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짓부수며 그들을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적극 기여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언론탄압자의 언론탄압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6일~27일

파쇼와 독재를 자기의 생존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예외없이 정의를 주장하는 민주적인 언론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광분했다. 세계사를 돌이켜보아도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중국에서 진나라시기때만해도 그랬다. 당시 진시황은 학자들의 정치적 이탈을 막기 위해 진보서적들 가운데 의학, 농업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모든 서적들을 불태워버렸다. 그것도 부족해 다음해에는 수천수만의 학식있는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놓고 무참하게 학살했다. 분서갱유라는 말은 이 치떨리는 민중학살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사상초유의 언론탄압말살사건이다.

언론탄압의 역사는 한국근대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1961년에 있은 진보서적에 대한 대량압수와 함께 조작한 민족일보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내용과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에서는 분서갱유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집단은 이 땅에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고리의 하나로 이른바 ≪민족일보≫ 사건을 조작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협상과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길을 지향했던 민족일보는 창간된지 3개월만에 폐간됐고 수많은 양심적 언론인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박정희 군사독재집단의 이 언론탄압행위에 적극 추종하면서 그 하수인 역을 한 자가 바로 현재 한나라당 총재라고 하는 이회창이다.

그는 박정희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그가 조작한 혁명재판부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민족일보사건을 직접 다루었다. 그는 진보적 언론인들에게 당치않은 죄명을 들씌워 중형을 선고했고 조용수사장에게는 사형판결을 내렸다. 이 사형판결은 항소심 선고공판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그해에 집행되었다. 한국사상 최대규모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장본인은 이회창이였다.

이처럼 일찍이 법관의 감투를 쓰고 군사독재집단의 파수꾼이 되어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한 언론을 말살하고 진보적 언론인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들씌우면서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이회창이 아직도 정계에서 돌아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할 일인가. 그런데 더욱 분격을 금할수 없는 것은 이런 언론탄압자가 지금에 와서 무슨 언론탄압설을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언론탄압이니 언론길들이기니 민주주의 위기가 극에 달한 것이니 뭐니 하며 온갖 험담을 다했다.

족벌언론, 파쇼언론의 부정비리와 부정협잡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언론개혁활동을 홍위병, 관변단체로 매도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했다.

악어와 악어새와의 연결고리처럼 민족반역자와 국민을 등진 썩은 언론과의 추악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회창은 언론사세무조사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북과 연결시키며 무슨 사전정비작업이니 비판언론죽이기니 뭐니하고 떠들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남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고 언론의 민주개혁을 막아 특정언론과 매문가들을 자기의 음흉한 정치적 목적수행에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잘알수 있다.

실제로 이회창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반민족반통일매문가들을 이용해 자기의 더러운 대권욕을 채우려는데 써먹고 있다. 그러니 이회창의 언론탄압설은 정권탈취를 위한 광대극이다.

진보적인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이런 자가 대통령감투를 쓰면 이 땅에는 지난 군사독재시기보다 더한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언론은 서슬퍼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 당하고 말 것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언론탄압의 괴수 이회창을 하루빨리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너도나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논설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일

올해 이북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월22일 평양에서는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정하고 6.15공동선언의 고수이행,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운동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제거를 골자로 하는 3대호소와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정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정할 것을 제의했다. 이 3대호소와 3대제의는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주체적 힘에 대한 믿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애국애족의 발기이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공동사설의 주장과 합동회의의 3대호소, 3대제의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기필코 이행하여 우리 민족 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려는 한결같은 염원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하여 7천만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국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그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다.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발표 2돌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온 겨레는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한다. 민족의 넋을 지니고 민족의 피가 끓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민족구성원 모두가 자주의식을 지니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통일애국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통일의지와 열망을 투쟁으로 승화시켜 올해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면 사대와 외세의존을 버리고 민족공조를 해야 한다.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단합선언인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6.15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며 역적행위이다.

우리는 반통일세력들이 ≪한미일공조체제≫를 제창하며 6.15공동선언이행의 앞길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모든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동족과 화합협력하며 민족공조로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면 내외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 지금 부시정권은 반테러를 구실로 시작한 전쟁을 확전하여 그 불씨를 한반도에 옮기려 혈안이 되어 있고 그에 편승한 이회창 등 반통일세력들은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고 민족대결을 부추기는데 광분하고 있다.

부시의 집권후 연속 내뱉고 있는 호전적인 대북강경폭언들은 전쟁공포분위기를 확대시키며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온 겨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악의 축≫망언은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으며 우리 민족의 거세찬 자주통일의 흐름을 차단하고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다.

부시에게 빌붙어 대권을 노리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세력들은 민족의 안위나 번영보다 일신의 출세와 기득권유지를 위해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역행하는 반통일역적들이다.

우리 민중은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하며 그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서야 한다.

연방제는 평화통일의 유일한 방도

노선일 - 구국전선 주체91, 3월 1일

지금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남도 북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용인하는 기초위에서 해야 한다.

만일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된다.

대결과 전쟁은 우리 민족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온 민족, 온 강토에 참혹한 재난을 가져다준다.

우리 겨레가 통일을 하려는 것도 민족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이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방제방식의 통일밖에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족분열이래 처음으로 이룩된 획기적인 성과이며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의 역사적 진전으로 된다.

남과 북은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이야말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방식이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한 나라안에 두개의 사상과 제도가 얼마든지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인 우리에게는 사상과 제도를 넘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충분한 민족적 기초가 있다.

민족애와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화해하고 단결하면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제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방제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이 길에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도 있고 이러저러한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멈추어서서도 안되고 주춤거려서도 안된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민족을 살리는 연방제통일을 향해 힘차게 힘차게 나가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28일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부쉬규탄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공화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몰아 대면서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망언을 늘어 놓은 부쉬를 규탄하여 1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7천만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파괴자 부쉬를 준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전쟁에 미친 평화의 파괴자 부쉬의 이번 남조선행각이 반통일, 반민족사대세력을 부추겨 우리 민족내부에 분렬을 조장하고 ≪전시작전권≫의 실질적행사자로서의 미국의 지배권을 더욱 확고히 다질뿐아니라 ≪세계화≫를 통한 가혹한 경제적수탈을 한층 강화하여 민중의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겨레모두가 그를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반통일, 반민족사대세력에 무서운 징벌을 가하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갈것이라는것을 부쉬에게 명백히 밝힌다고 언명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우리 겨레의 확고한 신념과 불변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제침략군을 몰아 내야 한다

로동신문

8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조선민족은 분렬로 인한 불행과 고통,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글의 필자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은 본의 아니게 분렬의 비극을 강요 당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미제우두머리들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마치도 남조선인민들의 ≪요청≫에 의한듯이 광고하고 있지만 반미투쟁이 대중화된 남조선에서 그것은 더 이상 통할수 없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을 일떠세우려는 의지가 더욱 굳세여지고 있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대결과 전쟁, 분렬책동을 일 삼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시대착오적이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조선에서 침략과 간섭의 손을 떼야 한다.

≪악의 축≫론을 옹호해 나선 미국부대통령 비난

로동신문

≪로동신문≫ 28일부는 미국부대통령 체이니가 부쉬의 ≪악의 축≫론을 옹호해 나선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체이니가 부쉬의 아시아행각을 앞두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위협≫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느니 그 누구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강화할것≫을 호소한다느니 하면서 그를 두둔하여 분주탕을 피운것은 ≪악의 축≫발언으로 입덕을 본 부쉬에게 ≪지원포≫를 쏘아 주려는데 있었다고 까밝혔다.

론평은 부쉬의 ≪악의 축≫론은 ≪테로를 반대한다≫는 구실을 내대고 군사적 간섭과 침략전쟁을 확대하여 세계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함으로써 세계를 미국독주의 1극세계로 만들려는 패권주의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체이니가 부쉬의 ≪악의 축≫론에 유럽동맹국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건방진 소리를 해댄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제 정신을 가진 나라치고 미국의 전쟁히스테리적인 행동에 맹종맹동하여 춤출 나라는 없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상대를 너무나도 모르고 덤비고 있다. 적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답하는것은 우리의 혁명적기질이며 자주적인 대응방식이다.

우리는 적들이 덤벼 든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침략의 무리들을 모조리 징벌할것이다.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 뷸레찐특간호 발행

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 15일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경축≫이라는 제목의 뷸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특간호는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의 요지를 게재하였다.

특간호는 ≪조선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빛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각하께서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필승의 신념과 대담성, 신심과 락관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를 령도자로 모신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썼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 년차총회 진행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에서 9일 년차총회가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사회주의당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가 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지난 기간에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령도업적에 대한 토론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해 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90돐이 되는 올해에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조직의 대렬을 량적으로, 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나라 정당, 단체 부쉬의 망언을 규탄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은 조선을 ≪테로≫와 결부시켜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한 미국대통령의 망발을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전문을 보내여 왔다.

슬로벤스꼬공산당 위원장 요제프 쉐브쯔는 부쉬의 망언을 저들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지배주의적야망으로 규탄하였다. 부쉬의 망언은 또한 국내에서의 심각한 경제적위기를 우려하는 미국인민들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려는 시도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중앙위원회는 미제는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진보와 평화를 지향해 나가는 인류의 념원을 막아 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친선적아랍민족해방운동력량 및 정당들은 세계를 저들의 요구와 조건에 순응하도록 통치하려는 미제국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한 전호에 튼튼히 서 있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므니아근로자협회 위원장 다니엘 데디우는 미국대통령의 망발은 진보적이고 문명한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조선인민의 머리우에 칼을 쳐든것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선인민이 국방력을 강화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적로동에 대한 권리를 목숨 바쳐 지키려 하는데 대하여 못마땅해 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압력에 눌리워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할수 없다

민주조선

8일부 ≪민주조선≫은 부쉬가 남조선에까지 기여 들어 우리에 대하여 입에 담지 못할 악담까지 늘어 놓은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굴복시켜 저들이 지배하는 울타리안에 끌어 들이려고 얼마나 분별없이 날뛰고 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부쉬가 우리의 있지도 않는 ≪위협≫을 떠들다 못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걸고 들며 중상모독해나서고 있는것이야 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망동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부쉬패거리들이 그 무슨 ≪대화≫에 대해서도 운운하고 있는데는 우리에게 심리적압박감을 주어 그 어떤 양보를 받아 내며 저들의 강도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을 내리먹이려는 술책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우리에게는 이런 대화상대방이 필요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의 무모한 대조선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해 지고 있으며 전쟁폭발의 사태가 림박해 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눌리워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할수 없으며 혁명적원칙을 저버릴수 없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을 힘 있게 떨치자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2월 28일

오늘 우리 조국은 불패의 군력에 의하여 전진하는 위대한 주체의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혁명군대를 이끄는 령장이 위대하고 군대와 인민이 백전백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기에 우리의 군사력은 백방으로 다져 지고 강성대국의 광활한 미래가 앞당겨 지고 있다.

우리 당은 올해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제일주의를 4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선군시대의 영원한 기치로 틀어 쥐고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당, 전민의 뜨거운 지향과 념원을 담은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는 지금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 주고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 세우려는 불굴의 의지를 천백배로 북 돋아 주고 있다.

우리 군대제일주의,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의 거창한 현실과 우리 인민의 드팀 없는 신조를 반영한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우리 인민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 총대의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한 인민이며 총대에 의거하여 천신만고를 이겨 내고 백승을 떨쳐 온 영웅적인민이다.

우리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는 인민군대제일주의구호는 총대중시, 군사중시를 제일생명선으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내세우고 총대와 함께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드팀 없는 신념의 분출이다. 인민군대의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이 있고 인민의 안녕이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조, 그 어떤 강적도 때려 부시는 백두산혁명강군을 가지고 있는 크나큰 긍지,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할 때까지 총대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견결한 반제투쟁정신, 이것이 우리 군대제일주의 구호에 맥박치는 정신이다.이 구호에 ≪고난의 행군≫과정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철학을 신념으로 새긴 우리 인민의 강의한 혁명적기질이 어리여 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위대한 령장을 모신 자기의 군대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을 안고 혁명군대제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는 인민은 오직 우리 인민뿐이다.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세계제일의 선군령장이 계시고 천하무적의 강군이 있으며 총대를 끝 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혁명적인민이 있는 사회주의조선에서만 나올수 있는 혁명적구호이다.우리 군대제일주의 구호에는 최고사령관과 천만군민이 불가분리의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모습이 비껴 있고 그 어떤 강적이 달려 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주체조선의 기상이 맥박치고 있다.이 구호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멸적의 구호로, 핵무기보다 위력한 투쟁의 무기로, 강성대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해 나가게 하는 승리의 표대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민군대제일주의 구호가 높이 울리고 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선군혁명로선의 무궁무진한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위대한 혁명로선은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고 천만군민의 심장을 틀어 잡는다.

선군로선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격파하고 사회주의 수호전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 온 필승의 보검이며 강성대국건설의 광활한 진군로를 열어 놓은 위대한 혁명로선이다.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위대한 자주강국으로, 정치대국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것은 선군의 기치아래 날로 강화되고 있는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이 있기때문이다.

선군혁명로선은 21세기의 시대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로선이다.오늘날에 와서 선군사상, 선군로선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정치사조로 되고 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반제계급투쟁의 기치, 사회주의승리의 기치로 되고 있다.세계각국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우리 당의 선군로선에 커다란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선군사상의 조국에서 살며 선군의 위력으로 자주의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고 있다.**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한 위대한 선군정치에 대한 열화 같은 전 인민적지지,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선군의 길외에 다른 길이 있을수 없다는 전체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이 그대로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로 폭발하여 온 강산을 진감하고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우리 인민의 모든 사업과 생활에 깊이 뿌리 내린 필승의 구호로, 전 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기나긴 세월 자기 군대에 대한 크나큰 긍지를 안고 혁명의 총대와 함께 승리를 떨쳐 온 인민이다.항일의 혈로를 헤치는 나날에 생겨 나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 시련에 찬 사회주의건설의 나날들에 굳세여 진 우리 군대제일의 정신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 진군길에서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고 있다.21세기 새로운 대고조의 불바람이 일고 있는 일터마다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고 있고 풍만한 정서와 랑만이 넘치는 생활의 갈피마다에 인민군대찬가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오늘의 우리 사회는 인민군대제일주의정신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확고히 지배하고 있는 힘 있고 생기발랄한 사회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닌 인민군대제일주의정신의 핵은 우리 장군제일주의, 우리 최고사령관제일주의이다.

위대한 령장이 있어 위대한 군대가 있고 불패의 군사강국이 있다.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인민군대는 곧 우리 장군님이시고 군대에 대한 긍지는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긍지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 강철의 의지와 뛰여 난 령군술을 지니신 천출명장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다.백두의 령장 **김정일**동지의 당당한 위풍과 드센 배짱은 언제나 적들을 전률케 하고 착잡한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은 모두가 백발백중하였으며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동지애는 천만군민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원천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숨 쉬고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으로 전진하며 장군님의 지략으로 백승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다.오늘 적들이 우리 인민군대를 저들의 가장 무서운 상대로 보며 공포에 떨고 있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을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고 계시기때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기상에서 힘을 얻고 장군님의 백승의 령도력에서 승리를 내다보며 억세게 싸워 왔다.우리의 최고사령관이 제일이라는 그 신념이 ≪고난의 행군≫의 류례 없는 시련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일떠세웠고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무비의 용맹을 낳게 하였다.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워 하지 않으며 그 어떤 대국도 쳐다보지 않는 우리 군민의 크나큰 민족적자존심도, 천만대적이 덤벼 들어도 두려워 하지 않는 군대와 인민의 담대한 기질도 우리 수령, 우리 장군제일주의에서 우러나온것이다.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야말로 세계를 격동시키고 지구를 뒤흔드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의 근본원천이며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원동력이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김정일**혁명강군으로 위용 떨치는 인민군대의 불패성에 대한 드팀 없는 신념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아래서 천백배로 장성강화된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은 무한대이다.전군이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만단창되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철벽의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대를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지구상 그 어떤 침략의 아성도 단매에 짓뭉개버릴수 있는 무한대한 타격력과 전투력을 지니고 있는 무적강군이 오늘의 조선인민군이다.

보라, 우리를 보라는 필승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전진하는 조선인민군의 당당한 위용은 우리 인민에게 **김정일**혁명강군이 세계제일이라는 확신과 긍지를 안겨 주고 있다.정치사상적풍모에서도, 군사기술적위력에서도 인민군대가 제일이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에서도 인민군대가 제일이라는것이 우리 인민의 투철한 신념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백전백승의 위력은 인민들속에서 나오고 인민들과 끊을수 없는 혈연적련계를 맺고 있는데 있다.일찌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라고 하신것처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의 군민일치사상을 계승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도록 하시였다.

우리 군대는 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되였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 군대를 친혈육처럼 아끼고 무한히 사랑하며 인민군대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여기에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남을 침략하는것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군대에 비할바 없는 우리 조선인민군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위력이 있다.

불패의 강군이 있기에 우리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고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강경고압이다.우리 당과 인민은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정치적대결과 치렬한 외교전에서 주도권을 틀어 쥐고 련전련승하여 왔으며 ≪고

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을 과감히 돌파하였다.우리 인민을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는 강의한 인민,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인민으로 존엄 떨치게 한 인민군대제일주의의 위력은 참으로 무궁무진한것이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총대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총대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이다.

우리 인민의 운명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총대와 하나로 잇닿아 있다.총대를 그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수 없으며 사탕알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이는 못 산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드팀 없는 생활신조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다지는것을 혁명의 운명과 민족의 생사와 관련되는 제1차적인 중대사로 틀어 쥐고 나가고 있다.비록 자신들은 고생을 하여도 인민군대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지성을 다 바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감탄시키고 적들을 전률시키고 있다.우리 인민의 심장속에는 인민군대와 포연탄우도 함께 헤치고 결전의 길에도 함께 나서며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해나갈 확고부동한 신념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다.인민군대제일주의로 무장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풍모는 사회주의붉은기정신의 최고표현으로,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이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는 오늘의 격동하는 현실은 전당, 전국, 전민이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위업을 세기를 이어 가며 견결히 고수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행위와 전횡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반테로≫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들씌우고 있는 오늘처럼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만무례하게 날뛴 때는 일찌기 없었다.오늘의 복잡다단한 정세는 우리가 인민군대제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악전고투하면서 군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 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선군의 기치를 놓으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고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면 자주적인민으로 존엄 떨친다는것이 현대정치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그 어떤 풍파가 닥쳐 온다고 해도 0.001미리메터의 탈선도 없이 선군의 기치, 우리 군대제일주의기치를 영원히 높이 들고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우리 군대제일의 구호가 높이 울리는 곳에 승리의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높이 떨쳐 지게 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는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총대의 위력으로 만난을 뚫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불패의 위업이다.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에는 선군정치의 요구대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본보기로 내세우고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혁명적투쟁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갈데 대한 요구가 담겨 져 있다.

오늘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의는 비상히 높다.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려운 전투장마다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발휘하는 영웅적위훈은 전민을 격동시키고 전국을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고 있다.인민군대가 강성대국건설의 제1선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전체 인민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총 돌격전을 벌려 나갈 때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시대의 표대이고 승리의 기치인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심장으로 높이 부르며 올해의 총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투쟁행로에 새겨 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60성상은 항일의 전구에서 시작되고 가장 성스러운 혁명군인의 세계에서 흘러 온 위대한 군인의 력사이며 총대를 틀어 쥐고 백승을 떨쳐 온 위대한 선군령장의 년대기이다.우리 혁명무력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전투적행로는 군대의 혁명적성격과 기질도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기질에 있고 혁명군대의 군풍과 전투력도 최고사령관의 령군실력에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느 인민도 지니지 못한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건군 70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 장군님제일의 노래소리가 온 강산에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우리는 선군의 기치밑에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오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세기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엮어 오신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며 선군령도의 길에 새겨 진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것은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 떨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백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는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다.인민군대에서는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는 전체 인민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맞게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건군 70돐을 맞는 올해를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서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는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하고 혁명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제1선 정예대오로, 백두령장의 두리에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의리로 굳게 뭉친 하나의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전체 인민은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위력에서 커다란 힘을 얻고 있다.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사상과 정신, 도덕과 문화,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의 모든 면에서 혁명대오의 핵심이 되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오늘의 정세는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못지 않게 긴장하고 첨예하다.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더욱 악랄해 진다. 현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혁명하는 인민들이 계급투쟁관점을 똑바로 세우고 반제계급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계급적리익을 침해할 때에는 어느 때든지 추호의 용서도, 사소한 자비도 없이 단호하게 짓뭉개버리는것이 조선인민군의 용맹한 기질이다.인민군대에서는 일당백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며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침략의 선불질을 한다면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없애버려야 한다.

천하제일강군으로 위용 떨치는 인민군대의 사상과 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군대는 사상과 정신, 도덕의 거울이며 투쟁과 생활의 본보기이다.우리 군대제일주의를 구현한다는것은 모든 면에서 군대를 본보기로 삼고 전민이 인민군대의 모습을 닮는다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우리 인민이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서 인민군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과 숭고한 혁명적동지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과 알뜰하고 깐진 살림살이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정치사업을 하여도 인민군대처럼 화선식으로 하고 일판을 벌려도 인민군대식으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하며 노래를 불러도 인민군대의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랑만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군대제일주의가 몸에 배인 선군시대의 참된 혁명전사이다.

온 나라에 군사중시사상과 옹군기풍이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옹군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우리 군대제일주의를 구현한다는것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옹군사상을 관철한다는것이다.총대중시사상이 투철하고 옹군열의가 비상히 높은 훌륭한 인민이 있기에 무한대한 종심을 가진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는것이다.

전체 인민들은 군사중시사상의 견결한 체현자, 옹군사상의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우리는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틀어 쥐고 군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밀고 나가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누구나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껏 도와 주어야 한다.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불 타는 적개심과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온 나라에 혁명적군인가정들이 계속 수많이 나오게 하며 ≪우리 초소-우리 공장≫, ≪우리 초소-우리 농장≫, ≪우리 초소-우리 학교≫ 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모든 청년학생들은 총대를 잡고 어렵고 힘든 조국보위초소에 나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사수하여야 한다.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제대군관들과 인민군후방가족들을 적극 내세워 주고 잘 돌봐 주는 고상한 기풍이 온 나라에 확고히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 이 구호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백전백승의 선군사상이 힘 있게 맥박치고 있으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의 력사가 력력히 새겨 져 있다.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제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선군정치를 구현하는 길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성취할것이며 강성대국의 찬란한 현실을 펼쳐 나갈것이다.

모두다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힘차게 전진해 나감으로써 **김정일**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과 조선민족의 존엄을 온 누리에 떨쳐 나가자.

21세기 3 · 1운동은 민족자주평화 실현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 자주 선언 대회

올해로 83돌인 3 · 1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오늘(1일) 오후 종묘에서는 시민 · 사회단체, 학생 등 400여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 자주 선언 대회≫를 가졌다.

특히 이 행사에는 3.1 운동 당시 가담했던 범민련 신창균 명예의장이 자리해 참석한 이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한번은 그 당시 항일 정신을 담아, 두 번째는 지금 7천만 겨레가 자주 · 민주 ·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삼창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날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 의존과 ≪새해 맞이 행사≫ 무산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장이 돼 줬다.

대회사에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KCRP 변진흥 사무총장은 ≪새해맞이≫ 행사 차원의 방북과 관련해 ≪통일연대를 비롯해 애초 가기로 돼 있던 이들이 함께 가지 못하고 또 금강산에 간 이들도 제대로 행사를 치르지 못해 유감이다. 하지만 북에 도착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마운 마음과 아쉬워 하며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그 마음은 잊을 수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덧붙여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쟁의 해 선포와 달리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의 해≫를 선포하고, 분단과 전쟁을 딛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껏 살아 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농민총연맹 정현찬 의장도 ≪지난 한 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수난의 시대였다. 하지만 오늘날도 부시 방한을 비롯해 우리에게는 수난이 많다≫고 우려를 표하고 ≪이를 저지하며 노동자 · 농민 온 민족이 단결된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종교, 여성, 대학생, 문인 등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3.1 항일 정신 계승 미일 전쟁 획책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301인 민족 자주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낭독을 맡은 광운대 정종성 총학생회장과 광운대 새내기 공혜정씨는 ≪그 동안 우리 역사는 외세와의 투쟁으로 점철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내정 간섭과 무기 강매를 일삼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 민족의 자주권을 수탈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좌시 할 수 없다. 이에 3.1 독립 운동을 일으켰듯 21세기 새 3.1 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생존을 보장하자≫라는 내용을 전했다.

한편 각 단체 대표들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행사 제목 걸개에 손바닥으로 찍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장효숙 기자
유뉴스 2002/03/02

달라진 3 ·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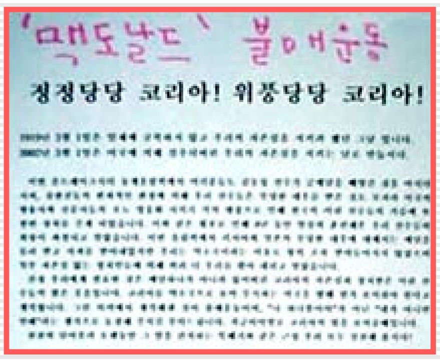
노장층은 ≪반일≫ 청년층은 ≪반미≫

최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반미열풍이 83주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진정한 독립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삼일절을 앞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고, 정부기념식에서 ≪선구자≫ 대신 독재정권하에서 금지곡이었던 ≪상록수≫가 울려퍼졌다.

부시의 ≪악의 축≫으로 요약되는 대북적대적 발언과 솔트레이크에서 있었던 김동성선수의 ≪금박탈 사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불붙은 반미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이 이쯤되면 단순히 반미감정으로 고취된 애국심의 감정적 촉발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상품 불매운동 합시다≫라는 글은 ≪미국제품 불매운동, 그것은 상처 받은 한국민의 자존심이다≫라며 전제한 뒤, ≪지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은 김동성 선수 일로 분노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맥도날드를 애용하고 있습니다≫며 ≪공중파 방송에서 반미감정이 불매운동으로 번져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맥도널드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 급감≫이라는 뉴스가 보도될 때까지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선동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운동이 미국 문화를 어린 시절부터 향유해온 2,30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미국 문화를 생활처럼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솟는 반미감정이 새삼스러울 수도 있지만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분단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한달동안 부시정권의 입을 이용해 남북관계에 찬물을 뿌려왔던 일부 야당과 극우언론은 반미열풍에 큰 타격을 받았다. ≪김동성 금박탈사건≫을 양비론으로 몰았던 조선일보는 만평을 두번이나 바꾸는 촌극을 벌였고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큰 곤경에 빠지게 하기도 했다. 부시와 오노가 촉매가 되어 ≪반미≫가 특정 운동권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확산된 2002년 삼일절. 많은 국민들은 기미년 3월 1일 정오에 일본인을 떨게 했던 그 함성이 미국에게도 큰 경고로 작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문선영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01

동아 · 조선, 명단공개 ≪왜곡보도≫

朝鮮日報
일부議員, 친일名單에 16명 임의추가 물의
광복회 "정치적·감정적 처리"
東亞日報
일부 與野의원 '親日명단'에 16명 임의 추가
광복회 "자의적 선정" 유감표명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민주당 의원)이 일제하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을 놓고 대다수의 언론들이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한 반면 동아, 조선이 관련기사를 왜곡보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지≫임을 자처해온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용기있는 작업을 높이 평가하기는커녕 비판기사로 1일자 지면을 도배질 했다. 이는 명단 가운데 자사 전 사주(방응모 전 조선 사주, 김성수 전 동아 사주)의 이름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신문은 당초 광복회가 확정한 692명 가운데는 자사 전 사주의 이름이 없었다가 나중에 민족정기 의원모임측에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추가시킨 16명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포함되자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자의적,정치적, 감정적≫이라며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두 신문은 모두 윤경빈 광복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는 마치 윤 회장이 ≪16명 추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윤 회장의 발언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일자 문화일보(석간)가 3면 해설기사에서 윤 회장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처음 보도했으며, 2일자 한겨레는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왜곡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1일자에 이어 2일자에서도 동아, 조선 두 신문은 국회의원들의 이번 친일파 명단 공개를 거듭해서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7)

24. 거기(노무현 후보에 대한 비판적지지)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2002 대선에서는 개혁 대 反개혁의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이회창 대 反이회창 전선, 또는 한나라당 대 反한나라당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노무현 진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문제 많다. 민주당 잘못한 게 많다. 그러나 이회창 대통령은 두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 즉,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을 지지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개혁후보인 노무현 또는 김근태를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비판적 지지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한국 정치는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회창과 노무현은 차이가 없느냐? 권영길 대표는 다니면서 ≪이회창 대 反이회창 전선 형성되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이회창과 노무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이회창과 노무현,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무현과 권영길의 차이는 더 큰 겁니다. 이 차이점이 본질적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노무현씨나 김근태씨와 연합할 수 없느냐≫고 양쪽에 다 묻고 있습니다. 문성근씨가 전남 어디에 가서 강연했더니 학생이 ≪노무현씨가 민주노동당과 연합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권영길 대표는 노무현씨나 김근태씨가 후보 되면 출마 안 하고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그랬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발전입니다. 진보 대 보수 구도 구축의 구체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대 反신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진보의 이 시대의 기준은 무엇이냐? IMF가 요구한 3대 요구 사항 즉, 신자유주의 핵심적 요소인 것, 그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입니다. 그건 뭡니까? ① 일방적인 금융 개방, ② 공기업의 사기업화 및 해외매각, 대기업 · 대공장 · 알짜기업의 해외매각, ③ 구조조정 또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용어로 포장되고 있는 대량해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수용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반대를 위해서 힘을 결집시키고, 반대를 위해 싸우느냐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개혁 그룹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개혁 대 反개혁,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일방적 금융 개방의 가속도 확충입니다. 그건 反개혁입니다. 공기업의 사기업화 및 해외매각 또한 박차를 가하고 폭을 넓히는 것이 그들의 개혁입니다. 구조조정 용어로 포장되고 있는 대량해고 역시 박차를 가하고 폭을 넓히는 게 그들의 개혁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반 개혁이지... 이렇게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25. 진보와 보수로 간다면 제반 노동자를 포함한 DJ정권의 민중 정책과 실제 실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저는 한 단락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문을 넓히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 역사적 성과를 넘어서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그 역사적 과오란 IMF 요구 사항을 즉, 신자유주의 핵심 요소를 무비판적으로 흔쾌히 과도하게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초국적 자본의 완전한 예속 경제로 만들어 버렸다.

즉, 한국의 1,300만 노동자들, 나아가서 농민들을 초국적 금융 자본의 품팔이꾼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기사를 8회에 나누어 연재해 드립니다)

반미와 남북화해 그리고 공안세력의 ≪위기감≫

새해맞이 공동모임의 무산 과정

새해맞이 공동모임이 제기되었을 때 통일부는 범민련 · 한총련 소속구성원, 법적 하자가 있는 자, 8 · 15 3대헌장 기념탑 참가자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범민련과 한총련 소속원, 법적 하자가 있는 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3대헌장 기념탑 참가자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상의 문제점은 먼저, 범민련 관계자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통일부조차 누가 3대헌장 기념탑에 참가했고 정확한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연대뿐만 아니라 종단이나 민화협 관계자들도 상당수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3대헌장 기념탑에 참가한 행위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고 법적 판결이 내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통일연대 각종 회의에서는 정세의 엄중성에 비추어 어떻게든 행사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하에 작년 3대헌장 기념탑 참가자는 신청 자체를 자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창균 선생 등 몇 명 정도만이 통일부의 불허 조건에 해당하였고 불허 통보 하루 전만 하더라도 불허자는 1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사 하루 전 불허자는 처음에는 80~90명이었다가(공안기관 등에서 통보한 숫자) 통일부의 나름의(?) 노력에 의해 46명으로 확정됐다. 통일연대가 애초부터 성사를 기본으로 사고했던 만큼 정치적, 법적 공방을 다툴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가령 범민련의 경우에는 아예 배정된 범민련 몫을 다른 단체에 양보했다. 그럼에도 방북이 불허된 46명은 ≪남북 교류협력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따위의 기준에 의해 선별됐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허자가 대다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허가자와 불허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이러저러한 고려와 정황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졌다기보다는 행사 자체를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28일 온정각에서 만
북측대표단과 남측대표단

그렇다면 왜 통일부(통일부의 불허자는 46명이고) 또는 공안기관(공안기관 등에서 통일부로 제출한 불허자는 80~90명선이었다고 한다)은 이러한 무리한 조치를 강행했을까?

이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있은 직후 남측에서는 반미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때마침 동계 올림픽 과정에서 미국의 편파적 자세는 국민 대중의 반미 정서에 불을 질렀다. 또 다른 한편 미국을 방문한 이회창 총재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이에 화답하여 그는 미 공화당의 강경 대북 노선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잃어버린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친미적 노선으로 다시금 급격히 회귀하였다. 이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첫째. 어떻게든 ≪악의 축≫ 발언을 되돌림으로써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둘째. 점증하는 반미 정서를 제압함으로써 한국 政情에 대한 통제력이 있음을 미국에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

새해맞이 행사에 대한 대규모 불허 사태는 이러한 정황의 산물이다. 한국의 보수수구세력과 공안기관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보기에는 부시 방한 과정에서 반미 정서가 폭발한 것에 대비하여 남북 민간급 접촉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초보적인 형태로라도 민족 공조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반미 정서를 통제하는데 이롭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새해맞이 공동행사의 무산은 부시 방한 과정에서 확산되었던 반미 정서의 확산과 이를 계기로 조성된 정부 당국 및 공안수구 세력의 위기감이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든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되돌리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시는 한국을 내한하기 이전 일본을 방문하였고 일본 방문시 시종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부시가 ≪악의 축≫으로 지칭한 이란.이북.이라크 중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만만한 것은 이라크이다. 이북과 이란으로의 확전은 이라크 전쟁의 향방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부시의 대북강경노선은 당장은 전쟁으로 치닫기보다는 긴장과 강경 정책으로 흐를 것이었다. 부시의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설득에 대해 ≪이북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정도의 가벼운 멘트 정도는 부담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향후 예상되는 이북과의 정면 대결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1.한미 동맹, 2.반테러 협력, 3.이북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4.대화로 문제해결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입장을 김대중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대신 대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정작 한반도 긴장조성의 주범인 부시는 일정 기간 시간과 명분을 축적하고 그 동안 남북대화에서는 남북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의제로 하여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북의 핵과 미사일은 대미 정치협상용으로 이남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대화의 의제가 되지도 않는 사안을 둘러 싸고 남북이 대화한 뒤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동안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던 미국이 남측을 대신하여 이북을 상대하는 수순이 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악의 축≫ 발언을 진화하기 위해 이러한 황당한 기조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 결과 부시는 가벼운 외교적 멘트 하나로 ≪악의 축≫ 발언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향후 예상되는 대북 강경노선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이익을 챙기고 돌아 갔다.

민경우 기자
유뉴스 2002/02/28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5)

대표집필자 최성원 / 2001년 11월 6일

순 서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김철수 동지는 ≪사물현상의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내적 원인이며 외적 원인은 내적 원인을 통하여 작용한다≫는 ≪철학원리≫를 적용하여 조미관계의 변화・발전과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관계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미관계의 질적 변화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관계를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의 관계로 해명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있어서 조미관계의 질적 변화가 외적 원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조미관계의 질적 변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민족 전체와 미 제국주의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조선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민족해방혁명의 최대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오늘, 그 투쟁의 대상이며 민족민주운동의 주적인 미 제국주의세력과 우리 조선민족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어찌 이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한 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조미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인식할 때,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국교수립)을 실현하는 비본질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한다거나, 또는 북측의 혁명역량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기의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체제방어전에서 승리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이해와 해석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조미관계의 변화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에게 ≪외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미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승리국면은 지금 막 전개되기 시작한 진행형이며 아직 완승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머지 않아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혁명정세는, 조선민족의 민족해방혁명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적 표현 대신에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진행형의 새로운 표현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조미 두 나라 사이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총포성 없는 대결전≫에서 조선이 승리를 거둔 것은 전술적 승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승리, 곧 민족해방혁명의 최후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북측의 혁명역량은 미제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해방혁명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국면을 열어놓은 것이며,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는 민족해방혁명을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반미자주화투쟁이 적극 방조하게 되면 미군은 철거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제시하고 있는 혁명정세 인식의 핵심내용이며, 민족해방혁명의 최후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혁명적 낙관주의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민족해방의 과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고 있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만일 이러한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을 ≪전형적인 북미 결정론의 편향≫이라는 모호한 말로 대체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세인식의 심각한 오류로 됩니다.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이 지금 우리의 취약한 민족민주운동역량이 방조할 여지가 없는 조건에서 북측의 혁명역량에 의하여 거의

→

광고

6.15주간

제35호 (2.22~2.28)

3 노작 - 일본 ≪아사히신붕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특집 -들끓는 민심,반미온도 100 °C
13 더욱 고조된 부시방한반대투쟁
14 한총련 테러규정 용납될 수 없다
15 부시,가장 환영받지 못한 방한
16 ≪악의 축 ≫에서 솔트레이크까지,민심이 끓는다
22 네티즌,거리로 나서 ≪미국제품 불매운동 ≫
26 부시방한 반대투쟁 범민련 남측본부 평가서(발췌)

6.15공동선언실현
32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결국 무산
35 ≪통일연대 불참 결정은 옳아 ≫

반통일세력 단죄규탄
38 인면수심의 인간
39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자

40 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 통일운동단체들 활동 자유 보장돼야

민중연대
41 공기업 ≪연대파업 ≫무엇을 남겼나

초청 연단
42 미국이여,낙점하소서?
44 부시는 결국 평양 간다

46 연단 -반부시투쟁을 더높은 반미투쟁으로

47 광고 -≪다 죽여라!≫Kill'em All 비디오/시디 배포 안내

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해서, 그 질적 변화가 우리 민족민주운동과 별로 상관이 없는 외적 원인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우리끼리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반미자주화투쟁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입니다.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생각해야 할 것은,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철수 동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북측에서 반미자주화는 북에 대한 미제의 포위고립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혁명의 근거지를 보위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는데, 이것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의 본질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입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민족해방혁명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문에서 우리들은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할 때, 북측에 대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제거하는 과업과 남측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를 제거하는 과업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해방혁명의 수행경로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들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먼저 제거하면, 그에 따라 남측을 강점한 미제도 순차적으로 제거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이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되는 경로를 밟아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한 뒤에 우리들은 민족해방혁명의 개념과 수행경로에 관한 우리들의 인식을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켰습니다.

1) 북측의 혁명역량은 민족해방혁명역량이다

북측의 혁명역량은 북측의 지역혁명을 수행하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일 뿐 아니라, 남측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역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적 집단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주체혁명의 수행과정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으로 심화・발전됩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은 이미 오래 전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양대 과업을 완수하였고 지금은 인간해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민족해방의 과업을 이미 완수한 북측의 혁명역량이 오늘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려고 투쟁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측에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려고 투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북측의 혁명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의 목적을 북측에 대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방어적 의미로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공방향은 사회주의 수호전이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입니다.

요즈음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북측은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에 대해서 자기희생적이라고 할만큼 아낌없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과 방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의 앞길을 **김일성**주의 혁명사상으로 밝혀주는 사상의 영도입니다.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을 사상적으로 영도하는 혁명영도의 유일한 중심은 조선노동당입니다. 조선노동당이 다른 나라의 민족해방혁명을 사상적으로 영도하면서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적극 지원・방조하는 것은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을 전진시켜 인류의 자주화 위업을 수행하는 불멸의 공적으로 됩니다.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분투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이 자기 나라의 민족해방혁명을 북측의 지역혁명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자기만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고 북측의 혁명역량은 사회주의 수호전과 자기의 지역혁명(사회주의혁명)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그 주위에 강철 같이 단결한 영웅적 조선인민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온갖 난관과 시련의 폭풍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전면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항미대결전을 벌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그 대결전에서 승리하여 미제를 정치협상의 자리에 끌어내고 마침내 조미 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하였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에 대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조선을 이른바 ≪불량배국가≫라고 모욕하면서 협상 자체를 거부해왔던 오만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콧대를 꺾어놓고 그들을 정치협상 자리에 끌어냈을 때,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한 것은 조선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조선에 대한 적대관계의 청산이라는 개념을 전국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적대관계를 청산하라는 요구는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중지하라≫는 반국적 관점에서 나온 지역혁명의 요구가 아니라,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짓밟고 있는 미제 침략군을 철수하라≫는 전국적 관점에서 나온 민족해방혁명의 요구입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지난 10여 년 동안 미 제국주의자들을 상대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해왔던 대미정치협상은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는 민족해방혁명의 간고・험난한 수행과정이였습니다. 이러한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에 대해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과제≫라고 제멋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워싱턴에서 발표된 조미 공동코뮈니케는 미군을 철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제국주의 침략군을 철거하는 길을 열어놓은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항미대결전의 주공방향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승리가 아니라 남측에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의 승리에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은 조선혁명의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이지만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민족해방혁명역량입니다. (내일 계속)

조국통일3대헌장

북남당국자들간의 협상, 7.4 남북공동성명 (1)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북남사이의 폭넓은 협상방침은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정계 상층인민들속에서도 정당대표들과 만나자고 한 이북의 제의를 허위선전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절대 잘못 이라고 하면서 민주공화당과도 협상하자고 하는데 왜 응하지 못하는가 고 들고 일어났다.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도 이 방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대세의 이러한 압력은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대화마당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 8월 12일 남조선당국자들은 적십자회담제의형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마침애 4반세기 분단의 장벽에 북남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북과 남이 비정치적인 인도주의문제이긴 하지만 제나라 제땅에서 무릎을 마주하고 상론하게 된 것은 분단의 력사에 파렬구를 열어놓은 하나의 사변으로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준 큰 경사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적십자회담을 인내성있게 끌고나가며 정치회담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시었다.

그 분께서는 1971년 9월 25일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 기자와 하신 담화, 1972년 1월 1일 신년사, 1972년 1월 10일 요미우리 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등을 통하여 북남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을 성의를 다해 성사시키여 분렬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밝히시면서 적십자회담을 디딤돌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 접촉과 련계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조국통일문제를 풀기 위한 북남정치협상을 진행할 데 대하여 주장하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 신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과 아무때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서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비록 조국과 민족 앞에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평화통일의 길에 나서신 사람이라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그와 통일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는 립장을 거듭 천명하시었다.

김일성주석의 변함없는 민족대단결 의지, 공화국정부의 인내성과 아량있는 주동적 노력에 의하여 적십자회담과는 별도로 쌍방련락대표들의 비밀접촉이 이루어지고 몇차례의 예비접촉을 거쳐 1972년 5월초 평양에서의 북과 남의 첫 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분단 4반세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의 고위당국자들이 마주앉은 정치회담, 그것은 사실상 북남상층통일전선의 서막이었다. 그것은 **김일성**주석의 시종일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령도, 다함없는 인내와 폭넓은 아량이 안아온 커다란 결실이엇다.

5월 3일 **김일성**주석께서는 회담대표로 온 당시 남조선의 중앙정보부장을 접견하시었다. 그 분께서는 분렬로 말미암아 오래동안 갈라져있던 동포끼지 만나고보니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하다고 하시면서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무릅쓰고 왔다는 그의 소행을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었다.

그는 극렬한 반공주의자였다. 하지만 민족대단결의 대경륜을 펴시고 온 민족을 대단결의 길로 이끄시는 **김일성**주석께서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가를 너그러이 맞아주신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통일문제를 놓고 그와 장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공통 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3대원칙을 제시하시었다. (내일 계속)